

상반기는 종합상사, 하반기에는 유통(요약)

-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 부진, 하반기에 다소 개선
- 종합상사, E&P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
- 2013년 상하반기별 투자전략과 Top picks

Analyst 박종렬
02) 3787-2099
jrpark@hmcib.com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 부진, 하반기에 다소 개선

2013년에도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에 가서야 다소 개선되는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가계 소비재원(소득+차입)의 증대가 쉽지 않은 가운데 수출 감소와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심리와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소비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에 따른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또한 소비재 영업실적과 주기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 전체적인 섹터의견은 여전히 중립을 유지한다. 섹터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며 종목별 접근이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 업황과 기업의 영업실적 등 펀더멘탈과 모멘텀의 회복은 올해 4분기 일시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재차 반락할 개연성이 높다.

종합상사, E&P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

연초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던 종합상사들의 주기는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를 비롯한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맞물리면서 commodity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시험하고 있다. 2013년 종합상사 각 업체별 E&P 수익은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의 반등과 생산물량 증대로 증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상품가격의 뚜렷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E&P 생산량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상하반기별 투자전략과 Top picks

상반기에는 종합상사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비재(유통, 섬유)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소비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우려가 크고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도 상품가격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GS리테일, 베이직하우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며, 하반기에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하이마트, 현대홈쇼핑으로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박종렬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 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HOLD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본 조사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